

상반기 아이돌그룹 음반 판매 '쑥'

BTS·세븐틴·엑소 백현 앨범 밀리언셀러

'톱 100' 판매량 지난해보다 42%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올해 상반기 가요계가 타격을 입었지만, 주요 아이돌 그룹 음반 판매량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집계하는 가온차트에 의뢰해 상반기(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1~26주차) 앨범 차트 '톱 100'을 2일 집계한 결과 상위 100위권 앨범 총 판매량은 1,642만7,000여장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톱 100 앨범 총 판매량(1,155만8,000여장)에 비해 42.1%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판매량 100만 장을 넘기며 밀리언셀러에 오른 앨범이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뿐이었지만, 올해는 여러 팀으로 늘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을 상반기 426만 8,000여장 판매하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가온차트 인증 역사상 최초로 '쿼드러플 밀리언' (Quadruple Million) 인증을 받기도 했다.

2위는 세븐틴이 차지했다. 세븐틴 미니 7집 '행가래'는 6월 22일 발매 후 27일까지 총 120만7,000여장 판매되며 세븐틴을 밀리언셀러 가수 반열에 올려놨다.

3위는 엑소백현의 '달라이트'로, 해당 기간 82만3,000여 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앨범이 6월 30일까지 101만8,000

여장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별도로 발표해 역시 밀리언셀러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NCT 127 정규 2집이 78만 4,000여장으로 4위, NCT 드림 미니 4집이 60만2천여장으로 5위, 트와이스 미니 9집이 56만3,000여장으로 6위를 차지했다.

NCT 127 정규 2집 리퍼키지 앨범이 46만7,000여장으로 7위, 아이즈원 정규 1집이 45만9,000여장으로 8위, 갓세븐 미니 11집이 44만4,000여장으로 9위, 아이즈원 미니 3집이 38만6,000여장으로 10위를 기록했다.

공고한 팬덤의 보이그룹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했으며, 걸그룹 가운데서는 트와이스와 아이즈원이 선전했다.

최상위권 음반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최근 주요 그룹들은 신보를 통해 기존 초동(발매 첫 주 판매량)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고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앨범 '톱 10' 중에는 300만장을 돌파한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판매량 40만장대 앨범이 2장, 30만장대 앨범이 1장, 20만장대 앨범이 6장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톱 10 가운데 5장이 60만 장을 넘어섰고 나머지 6~10위 앨범도 50만장대 1장, 40만장대 3장, 30만장대 1장 등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늘었다.

상반기 '톱 100' 앨범 절대다수가 아이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돌 가수 음반이지만, 지난해와 달리 드라마 OST 두 장이 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사랑의 불시착' OST가 92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가 95위로 이름을 올렸다.

드라마 OST는 같은 기간 음원 순위를 집계한 가온차트 '디지털 종합 톱 100'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였다. 상위

100곡 중 20% 가까운 19곡이 드라마 OST였다.

상반기 디지털 종합차트 1위는 지코의 '아무노래', 2위는 장모의 '메테오', 3위는 아이유의 '블루밍', 4위는 장범준이 부른 '멜로가 체질' OST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5위는 레드벨벳 '사이코'였다. /연합뉴스

단편 '성인식' 김민주 감독 '칸' 초청

"빛나는 순간 담아내는 영화 만들고 싶다"

단편 영화 '성인식'으로 칸 국제 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에 초청받은 김민주(29) 씨는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꿈 같은 곳에 초청받아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은 1998년부터 전 세계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를 선보이는 경쟁 부문으로, 올해는 총 1,952편이 출품됐고 이 중 17편이 초청받았다.

김씨는 전화 통화에서 "사실 3월 초에 칸에서 연락을 받고 선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곧 발표가 날 것이라는 메일을 받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며 웃었다.

그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수많은 새벽을 지새우며 그 자체가 재미있었고 행복했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정말 행복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날카로우면서도 빛나는 순간을 담아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씨가 연출한 영화 '성인식' (Twenty)은 20살이 된 현우가 생일을 맞아 친구들에게 이끌려 싸구려 모텔을 찾았다가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민주 감독

김씨는 "현우가 불안의 원인이었던 결핍의 원천을 마주하고 무너지며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숭실대 2학년인 김씨는 생애 처음

만든 단편인 '성인식'으로 지난해 총무로 단편영화제에서 우수 작품상을 받고, 영화인들에게 꿈의 무대인 칸까지 진출했다.

그는 남은 학업을 이어가며 단편 영화를 더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간은 외롭고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처절하지만, 그 생명력은 계속 이어지고요. 비극적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인물을 좋아해요. 그런 순간들을 담아 관객을 만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MBC '찬란한~', 의료진 왜곡·폭행 묘사 사과

홈페이지 인물 소개문구 수정·관련 영상 삭제

극 중 간호사에 대한 잘못된 묘사와 폭행 장면으로 물의를 일으킨 MBC TV 일일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 측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제작진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극 중 간호사인 박현희에 대한 잘못된 묘사와 의료진에 대한 폭력 장면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간호사 여러분과 시청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방송된 '찬란한 내 인생'에선 고상아(진애솔 분)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손톱을 화려하게 꾸민 간호사 박현희(유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MBC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개념 없는 간호사 참교육 시키는 진애솔'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방송 후 소셜미디어 등에서 '제작진이

간호사를 왜곡된 시선으로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법게 다뤘다'는 취지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제작진은 "극 중 간호사로 등장하는 박현희는 실제 국내 병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네일 장식과 구두를 착용하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 특정 환자께 편의를 제공하려 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현업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며 잘못된 묘사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극 중 인물인 고상아의 재벌 갑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폭행 장면이 전파를 타게 됐다"며 "제작진은 간호사 여러분 및 시청자께서 느끼신 불편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드라마 홈페이지 내 인물 소개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 영상은 삭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기용 "악역 아니지만 밋상 안되려 노력"

MBC '꼰대인턴' 서 안하무인 대표이사 역 "작품마다 '재발견'이라는 말 듣고 싶어요"

"심각한 악역은 아니지만 밋상일 수는 있어서, 밋지 않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MBC TV 수목극 '꼰대인턴'에서 안하무인인 준수식품 대표이사 남궁준수를 연기한 배우 박기용(35)을 최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웃기면 웃어버리고, NG인가 연기인가 싶다가 다시 연기해보려고. 준수는 그런 캐릭터여서 자유로웠다. 구자숙 역의 김선영 선배가 진정한 악역을 해주셔서 준수는 심각한 악역이 아닐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5년 영화 '괴담'으로 데뷔한 박기용은 영화 '두 사람이다', '최종명기행', '은밀하게 위대하게', '치즈인더트랩' 등과 드라마 '연애결혼', '추노', '황금물고기', '각시탈', '몬스터', '리턴', '신입사관 구해령' 등 다

수 작품에 출연해 벌써 웬만한 현장에서는 '선배급'이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연기한 남궁준수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기용은 "대본이 재밌고, 내가 표현했을 때 재밌을 것 같은 역할이면 '크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량보다는 제 나이에 해볼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려고 노력해요. 물론 악역을 자주 했고, 흥행도 잘됐죠. 악역 이미지가 고착되는 데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요. 물론 악역도 좋고 지금이 소중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갈수록 그 생각이 더 들고요. 저는 다 잘해요. (웃음)"

그는 이어 "작품이 잘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열심히 연기하는 쪽을 택한다. 흥망은 나의 손을 떠난 것이라 운에

맡겨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꼰대인턴'은 여운이 많이 남는다. 시즌2를 한다면 무조건 참여할 것"이라고 작품에 대한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함께한 김승수, 박해진과의 팀워크도 강조했다.

"배우들끼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엄청 활성화됐어요. 응수 선배님은 2005년부터 알았고, 해진 형도 친해요. 서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고 좋다고 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라 감사했죠. 현장에 포레가 많아서 편하기도 했고요. 세대 차 나면 '꼰대' 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라떼(나 때)'는 말이야'를 하고 싶은대로 했어요. (웃음)"

그는 이어 "현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작품도 잘됐다.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각시탈' 때만큼은 아니지만 인사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고 웃었다.

전작 '신입사관 구해령'에 이어 또 한번 '박기용의 재발견'이라는 칭찬에



배우 박기용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대해 그는 만족했다.

"제가 작품마다 '재발견'이라는 애기를 듣는데, 엄청난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듣고 싶은 말입니다. (웃음)" /연합뉴스

멤버 괴롭힘 논란 'AOA 지민' 팀 탈퇴

결그룹 AOA 동료 멤버였던 권민아(27)를 괴롭혔다는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지민(29)이 팀을 탈퇴한다.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5일 "지민은 이 시간 이후로 AOA를 탈퇴하고 일체의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NC는 "지민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사 역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아티스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민은 2012년 데뷔한 AOA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로 활동해왔다.



AOA 지민. /연합뉴스

그는 AOA 멤버였던 배우 권민아(27)를 활동 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권민아는 지난 3일 지민 때문에 AOA를 탈퇴하게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지민은 권민아에게 사과했으나 그의 사과 방식도 다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7월 6일 (음력 5월 16일)



48년생 군자는 나이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안다. 60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72년생 우리 모두는 노력 앞에 평등하다. 84년생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라.



49년생 모두가 꺼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61년생 과거는 모두 잊어라. 73년생 덕을 쌓으면 존경을 받는다. 85년생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는 날이다.



50년생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62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4년생 유희가에는 열선도 많다. 86년생 관련 없는 일에 휘말리지 말라.



51년생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는 좋겠다. 63년생 행동하지 않는 자는 얻을 것이 없다. 75년생 믿을 것은 빚쟁이이다. 87년생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52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64년생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76년생 욕심을 줄이면 평화가 찾아온다. 88년생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41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53년생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 65년생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린다. 77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



42년생 모처럼 하루가 땀 뚫린다. 54년생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형통이다. 66년생 수리에 역행하면 고생길이 열린다. 78년생 마음이 통하는 동지를 만난다.



43년생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55년생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67년생 지나치게 친절할 자를 조심하라. 79년생 될 놈은 어떻게든 잘 된다.



44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다. 56년생 인정에 이끌려 대의를 망치지 말라. 68년생 합리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80년생 원한 살 일은 절대 하지 말라.



45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57년생 능력을 발휘하고 신망을 얻는다. 69년생 손에만 보고 손 털고 일어난다. 81년생 모처럼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46년생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다. 58년생 힘들고 배고프니 우울한 날이다. 70년생 물고기는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 82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47년생 하는 일마다 한숨이 나온다. 59년생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71년생 작은 잘못이 침소봉대된다. 83년생 지금은 복지부동이 최선이다.